

뉴스와 쟁점 | News & Issue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연 라틴아메리카

이정은

유럽 난민 사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지난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120만 명이던 세계 난민이 2014년에 830만 명 증가한 5,95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 숫자가 가장 많은 해다. 그 중에서도 시리아인(408만여 명) 출신이 가장 많다.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760여명이 시리아인이 국내외로 삶의 터전을 찾아 대거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UN 난민협력). 그 와중에 시리아 인접국의 국경봉쇄 및 통제가 강화되면서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와중에 3,000여명 가까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난민을 실은 냉동트럭에서 전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유럽연합은 물론 전세계가 경악하였다. 2015년 유럽 난민사태는 난민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유럽연합은 물론 전세계가 난민문제에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인도적 국제여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초 아일란 쿠르디라는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유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사망하여 터키 해안가로 떠밀려온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난민수용에 반대하던 영국 등의 일부 유럽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도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아이를 안고 있는 난민(출처:<http://www.rpp.com.pe>)

반부터 중동지역의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는 현재 1,800만 명 인구가 중동 출신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20세기 초기 이후 아랍계 이주민의 현지 정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아랍 인구는 상업에 종사하는 등 브라질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며 오늘날까지 중요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아랍인에 처음 적극적으로 문을 활짝 연 브라질의 경우에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시리아 난민의 입국 장벽을 낮추고 적극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시리아 난민 수용 상황

2011년 내전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브라질 땅에 정착했다. 이 수치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의 난민 수용 숫자를 넘는 것이다. 난민이 브라질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난민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 브라질 정부의 배려는 물론 실제로 법적 난민 신분이 보

장되기 전까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교육 기회는 물론 보건 혜택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난민은 터키, 요르단, 레바논의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 난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까지 분쟁 출신국이라는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비자를 허용하는 법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동지역의 브라질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7,800건으로 실제 입국한 2,090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브라질의 국경은 확실히 열려있지만 난민 신분에 거주할 집과 일자리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보장하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 입국한 시리아인의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서비스 업종이나 비공식 부분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르투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점도 적지 않은 장애물이었다. 한 시리아 여성은 “대학 학위는 물론 사회경험이 있고, 영어를 구사한다 해도 포르투갈어를 못해서 현지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시리아 등 아랍계 공동체와 기존의 정착한 이민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¹⁾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브라질과 비슷한 시기에 아랍인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한 규모의 아랍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233명의 난민이 입국했고, 아르헨티나 당국은 2014년 시리아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마련해, 더 적극적으로 범죄 기록이 없는 시리아 난민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헤어진 가족을 상봉시킬 예정이다. 코르도바 주의 필라르(Pilar) 시 경우, 시리아 난민 50가구에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현지 정착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우루과이는 지난해 2014년 외교부의 지휘 아래 42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고, 2015년 4분기까지 76명이 추가적으로 수용하는 등 이번 시리아 난민 사태에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 9월 중순 시리아 난민이 몬테비데오 독립광장 앞에서 타바레 신정부에 “레바논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천막시위를 벌였다. “우루과이 사람들

1) <http://www.icndiario.com/2015/09/21/refugiados-sirios-en-brasil-no-reciben-viviendas-ni-ayuda-estatal/>

은 너무 친절하고 좋지만, 정부가 약속한 것은 사실과 달랐다”며, 특히 “정착 후 2년간 지원금을 받게 될 테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높은 현지 물가 때문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가족 수가 많은 탓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타바레 정부는 레바논 정부의 비자 거부를 거론하며 시리아 가족 귀국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거절의 입장을 밝히고, 지원 정책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 가족은 3일 동안의 철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며 사태가 일단락된 상태다.

칠레의 경우, 10명의 난민 지원자에 대해 허가가 떨어진 상태이며, 현 정부에 따르면 향후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입국한 1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 중 64명이 칠레로 귀화한 상태다.

페루도 9월 11일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수용 자격 및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며, 초기 25명의 시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사회교육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멕시코 또한 뒤늦게나마 난민 수용 물결에 힘을 합했다. 30명의 시리아 학생에게 시민권은 물론 보건,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프로젝트 하베샤(Proyecto Habesha)를 통해 대학과정을 마치도록 돕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일반 난민에 대한 비자를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시민들은 ‘멕시코에서 할 수 있어요!’(En Mexico Se Puede)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을 제고시키고, 1Change.org 사이트를 통해 0만 명의 멕시코인이 페냐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23일 코스타리카 정부 청사 앞에서는 시리아와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졌다. 이들은 “코스타리카가 분쟁국 출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평화적 제스처를 취해왔던 나라였다”고 주장하며 코스타리카로 입국하고자 하는 시리아인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인류애와 평화의 표명 “평화, 예수, 볼리바르의 땅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이 마법과 같은 대륙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은 20,000명의 난민을 원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콜롬비아 국경 봉쇄 및 콜롬비아인 추방 사태는 물론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는 발언이라며 국내외 언론의 비판에 부딪혔다. 또한 무작정 입국을 허용하기보다는 통합정책 및 사회적응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난민과 망명자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에서 정치 불안, 권력다툼, 독재정권, 테러리즘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경우 70, 80년대까지 독재정권시대의 정치적 망명자를 수없이 배출한 역사가 있다. 일찍이 1928년 아바나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사이에 정치적 망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였다. 1933년 몬테비데오에서 정치적 망명(Asilio político)라는 개념과 망명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협력이 체결되었고, 이후 1955년 카라카스에서 외교적 망명(asilio diplomático)에 대한 협력 등이 추가로 맺어졌다. 독재정권하의 망명자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모국을 떠나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는 물론 스페인 등의 해외로 떠나야만 했다. 다행히 위에서 언급한 협정 덕분에, 당시 대사관은 이러한 망명자의 신변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망명자에겐 마지막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자 피난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시리아의 난민에게 국경을 활짝 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유럽 인접국은 물론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혹은 불뚱이 튼 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에 시리아 난민 혹은 망명자를 수용하는 데 훨씬 개방적이고 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정은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